

大學 ‘教養漢文’의 웹기반 運營 事例 分析과 教育方法 摸索

白 光 鎬*

<目 次>

- | | |
|---------------------|-------------------------------------|
| I. 序論 | III. <漢字와 漢文> 웹기반 運營
事例와 f-class |
| II. <漢字와 漢文> 教材의 特徵 | IV. 結論 및 提言 |

<국문 초록>

본고는 대학에서 교양 과목으로 개설되는 ‘교양한문’의 웹기반 운영 사례를 소개하고, 강의 전후에 실시한 설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교육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글에서 연구 대상으로 한 강의는 한국의 8개 대학이 연합하여 개발한 <한자와 한문>이라는 강의이다. 한문 관련 전공이 아닌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설되는 교양한문 과목인 <한자와 한문>의 웹 콘텐츠 개발 및 사이버캠퍼스 운영 사례를 분석하고, 웹기반 강의가 가지고 있는 難點을 해소하고자 하는 교육방법의 하나로 f-class를 제안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우선, ‘교양한문’의 웹기반 운영 사례를 살펴보았다. 대학의 교양 교육이 점차 강화되면서도 그 강화의 방향이 실용교육에 치우치다 보니 한문 관련 강의가 점점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의 일례로 여러 대학이 연합하여 강의 교재와 강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개발한 교재에 맞는 팀티칭 웹기반 강의를 운영하였다. 그러나 웹기반 강의로 운영하다

* 全州大學校 漢文教育科 助教授 / khbaek@jj.ac.kr

보니, 학생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발생하였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새로운 교육방법을 찾은 것이 f-class이다. f-class는 학생들이 집에서 온라인을 통해 웹기반 강의를 듣고, 학교에서는 강의 내용을 전달하기보다 학습자들과의 직접적인 相互作用을 통해 보다 심화된 학습을 끌어낼 수 있는 토론과 조별 활동 등의 창의적인 학습을 수행하는 교육방법으로, ‘교양한문’에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웹을 기반으로 한 강의처럼 강의 전달 방식이 직접적인 소통이 어려울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교육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은 대학 ‘교양한문’의 웹기반 운영 사례를 소개하고, 학생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교육방법을 제공함으로써, 한문 관련 강의 개선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주제어】 교양한문, 웹기반강의, 한자와 한문, 사이버캠퍼스, 웹 콘텐츠, f-class

I. 序論

본고는 한국의 대학에서 교양 과목의 하나로 개설되는 ‘교양한문’ 과목의 운영 사례를 분석하고 새로운 교육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의 각 대학에 개설된 ‘교양한문’ 과목의 운영은 점차 축소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¹⁾ 특히 ‘교양한문’의 수강생은 점차 감소하고, ‘실용한자’의 수요는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다. 대부분의 대학이 대체로 이와 같은 추세를 보인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본고의 연구 대상은 한국의 8개 대학이 연합하여 개발한 <한자와 한문>이라는 강의이다. 이 강의는 경남대학교, 계명대학교, 관동대학교, 아주대학교, 울산대학교, 전주대학교, 한남대학교, 호

1) 이상봉, 「교양한문수업에 대한 몇 가지 제언-부산대와 인제대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자한문교육』 제28집,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12, p.595.

남대학교(이상은 ‘한국지역대학연합’ 소속 학교)에서 연합하여 개발한 것이다. 한문 관련 전공이 아닌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설되는 교양한문 과목인 <한자와 한문>의 웹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사례를 소개하고, 웹기반 강의가 가지고 있는 難點을 해소하고자 하는 교육방법의 하나로 f-class를 제안하고자 한다.

교양한문에 대한 선행 연구 성과는 다수 있다. 이를 살펴보면, 우선 대학 교양과목으로서의 한문교육은 그 역사가 오래 되었음에도 교육의 성격, 목표, 방법, 평가 등의 교육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거나 대안을 모색하려는 연구가 매우 부족했음을 지적하고 기존 교양한문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성격의 대학 교양한문 강의를 개발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 연구가 있다.²⁾ 또한 과거 대학의 교양한문이 전통적인 한문학의 내용을 주로 다루었다면 최근에는 학생들의 실용한자에 대한 요구를 반영한 강의로 점차 바뀌고 있음을 밝힌 연구도 있고,³⁾ 실용한자에 대한 요구가 점차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개선 방안의 하나로 실용성 위주의 실용한자를 가르치는 교육을 지양하고 古典을 통한 한문 교양 교육을 오히려 보다 적극적으로 가르쳐야 함을 제시한 연구도 있다.⁴⁾ 한편, 대학에서 이왕 漢字 중심으로 가르치기로 했다면, 적절한 학습교재를 개발해야 할 뿐만 아니라 부분별·단계별 학습 자료를 온라인의 학습 공간에 탑재하는 등 시대의 변화에 맞는 교수법과 교수매체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할 것을 주장한 연구도 있다.⁵⁾

선행 연구 성과를 살펴보다도 대학의 교양한문은 어떤 식으로든 개

2) 박영호, 「대학 교양 교육으로서의 한문교육의 방향」, 『동방학문학』 제27집, 동방한문학회, 2004, pp.321-347.

3) 이상봉, 앞의 논문.

4) 김영우, 「대학 교양한문 교육의 방향-인제대학교 교양한문을 중심으로」, 『한자한문교육』 제27집,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11, pp.311-334.

5) 김우정, 「대학 교양 한자 교육의 현황과 과제」, 『한자한문교육』 제20집,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08, pp.181-208.

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고에서는 여러 대학이 연합하여 교재를 개발하고, 웹기반학습(Web Based Instruction) 형식을 통해 양질의 강의 콘텐츠를 개발하여 운영한 강의 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개선하는 새로운 교육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여러 대학이 함께 개발한 <한자와 한문> 교재의 특징을 살펴보고, <한자와 한문> 강의 운영 사례 중 특히 講義 目標과 運營 方式, 온라인 강의를 위한 講義 콘텐츠, 講義 前後 設問 調查 結果 등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웹기반 강의로 운영하다 보니, 학생들과의 소통이 다소 不通되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방법으로 f-class를 소개하고자 한다.

II. <漢字와 漢文> 教材의 特徵

한국의 언어정책은 國漢文 混用과 한글 전용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다가 최근에는 한글전용 쪽으로 가닥이 잡혀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모국어 사용 능력보다 영어 사용 능력을 중시하는 세태에 따라, 지금의 대학생들은 한자와 한문을 낫설어 할 뿐만 아니라 학술용어는 물론 교양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언어 구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학생들에게 한자와 한문의 소양을 넓히도록 하는 것은 전공 학습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사이의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하고, 선인들의 삶과 지혜를 이해하여 건전한 價値觀과 바람직한 人性을 함양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教養漢文> 교육은 매우 필요하다.

위에서 언급한 한국지역대학연합은 이러한 문제를 직시하고 사회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한자·한문교육 공동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교재인 <한자와 한문>을 편찬하였다.

<한자와 한문> 교재는 학생들에게 중·고등학교 한문교육용 기초한자로 선정된 1,800자를 온전히 습득하고 한문의 해독 능력을 키우게 할

뿐만 아니라 국내 여러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 선발 기준에 합당한 한자 실력도 두루 갖출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 교재는 大學校의 한 학기 수업 분량을 염두에 두고 구성하되, 대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기 위한 측면도 고려되어 있다. 이 교재에서 가장 역점을 둔 것은 대학생들의 漢字 實力 向上이며, 이를 위해 古文과 現代文을 통하여 문장 속에서 자연스럽게 漢字를 익히도록 하였다.

古文의 경우, 학생들의 학습 수준을 고려하여 원문의 일부와 번역문의 일부를 함께 수록하였으며, 긴 문장은 편폭을 조정하되 原義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였다. 특히 한문 원문은 전공 학생들을 위한 과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풀이와 聲讀 연습을 위해 吐를 달았다. 한국에서는 예로부터 聲讀法을 창안하여 文理를 깨우치는 방안으로 활용하여 왔다. 성독의 역사가 문헌에 남아 있지는 않지만, 신라 때 鄉札이나 口訣이 쓰였던 것으로 보아 그 이전부터 한문에 吐를 달아서 읽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 전통은 고려와 조선을 거쳐서 현재까지도 서당 등에서 한문 학습법으로 계승되고 있다. 따라서 교재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한문 원문에 토를 달았다.

주변에서 흔히 쓰이는 故事成語 이야기를 통하여 선인들의 삶의 지혜를 배우도록 하고, 한문 문장에 대한 소양을 높이기 위해 經傳·短文·名言·句·漢詩 등에서 글감을 선별하였다. 마지막으로 한자와 한자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한자·한자어의 구성과 특징 등을 설명하여, 이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부록에는 한자 부수표와 漢字 繁體와 簡體에 대한 대조표를 수록하였고, 四字成語 目錄도 수록하여 각종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한자쓰기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부 선정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1,800자에 대한 음과 훈을 달아 한자쓰기 연습과제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Ⅲ. <漢字와 漢文> 웹기반 運營 事例와 f-class

1. 講義 目標와 運營 方式

Ⅱ장에서 소개한 교재의 특징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8개 대학이 연합하여 교재를 제작하였기 때문에 강의 방식 또한 8개 대학의 집필자들이 분담하여 강의를 해야 하는데, 각 대학을 순회하여 가르칠 수도 없기에, 이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웹을 기반으로 한 강의 운영 방식을 갖추게 되었다. 이러한 방식은 추후 제시할 f-class의 교육방법과도 연결된다. 이 장 4절에서 다시 제시하겠다.

본고에서 다루는 <한자와 한문> 강의는 지역대학연합 소속 8개 대학에 재직 중인 아홉 분의 교수님들께서 함께 강의하는 팀티칭 강의로, 8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 가운데 한자 실력을 키우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한 온라인 강의이다. 따라서 수강생 스스로의 꾸준한 복습이 필요하며 일정에 따른 학습 진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수강생 스스로의 꾸준한 복습과 일정한 학습 진도가 중요하다는 점 또한 f-class라는 새로운 교육방법을 모색하게 된 배경 중의 하나이다.

2. 講義 콘텐츠

강의는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교수의 사정이나 학교의 사정으로 인한 휴강이 발생하지 않는다. 수강생은 정해진 기한 내에 자신이 가장 편한 시간에 강의를 수강하면 된다. 웹기반 강의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15주 동안 교재 순서대로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은 교재에 대한 질문을 온라인에 올리고 동료 수강생이나 교수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강좌에서 사용하는 주교재는 『21세기 대학생을 위한 한자와 한문』⁶⁾이다. 강의는 총 15주로 구성된다. 15주 강의 내용과

해당 문헌을 살펴보면 <표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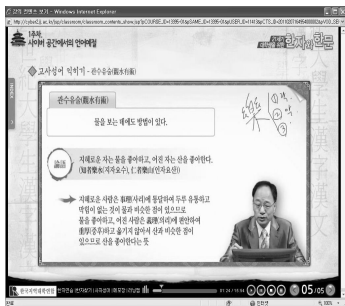
<표 1> 강의 콘텐츠

주차	차시별 주제			해당문헌
	1강	2강	3강	
1	지문 속 한자 익히기 고사성어: 觀水有術	한문 강독과 해설 (四字小學·學語集)	한자어의 특성	pp.14-23
2	지문 속 한자 익히기 고사성어: 伯牙絕絃	한문 강독과 해설 (童蒙先習·啓蒙篇)	한자어의 구조(1) -並列 構造	pp.24-33
3	지문 속 한자 익히기 고사성어: 刮目相對	한문 강독과 해설 (小學·大學)	한자어의 구조(2) -主語·敍述語 構造 -敍述語·目的語 構造	pp.34-41
4	지문 속 한자 익히기 고사성어: 狐假虎威	한문 강독과 해설 (論語)	한자어의 구조(3) -敍述語·副詞語 構造 -縮約 構造	pp.42-49
5	지문 속 한자 익히기 고사성어: 桃李不言 下自成蹊	한문 강독과 해설 (論語)	한자의 기초 이해(1) -漢字 字體의 變遷	pp.50-59
6	지문 속 한자 익히기 고사성어: 泣斬馬謖	한문 강독과 해설 (論語)	한자의 기초 이해(2) -漢字 造字方法과 運用原理	pp.60-69
7	지문 속 한자 익히기 고사성어: 伯樂一顧	한문 강독과 해설 (孟子·中庸)	한자의 기초 이해(3) -部首法1	pp.70-77
8	지문 속 한자 익히기 고사성어: 磨斧爲針	한문 강독과 해설 (兄弟投金·百結先生)	한자의 기초 이해(4) -部首法2	pp.78-85
9	지문 속 한자 익히기 고사성어: 愚公移山	한문 강독과 해설 (忍辱而待)	한자의 기초 이해(5) -漢字語의 構造	pp.86-93
10	지문 속 한자 익히기 고사성어: 君子三樂	한문 강독과 해설 (不言人之長短 ·人與物均)	한자의 기초 이해(6) -特殊한 漢字語	pp.94-103
11	지문 속 한자 익히기 고사성어: 傾國之色	한문 강독과 해설 (刻舟求劍)	한자의 기초 이해(7) -漢字 筆順의 原則	pp.104-113

6) 한국지역대학연합 <한자와 한문>편찬위원회, 『21세기 대학생을 위한 한자와 한문』, 태학사, 2009.

12	지문 속 한자 익히기 고사성어: 畫雪之功	한문 강독과 해설 (螢雪之功)	한자의 기초 이해(8) -우리나라 漢字 關聯 初學 教材	pp.114-121
13	지문 속 한자 익히기 고사성어: 咸興差使	한문 강독과 해설 (漁父之利)	한자의 기초 이해(9) -유래를 알면 유익 한 한자 어휘(1)	pp.122-129
14	지문 속 한자 익히기 고사성어: 曾參殺人	한문 강독과 해설 (名言句)	한자의 기초 이해(10) -유래를 알면 유익 한 한자 어휘(2)	pp.130-137
15	지문 속 한자 익히기 고사성어: 覆水不返盆	한문 강독과 해설 (五言詩·七言詩)	한자의 기초 이해(11) -유래를 알면 유익 한 한자 어휘(3)	pp.138-147

강의는 오프라인 강의와의 차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다양한 장치를 온라인에서 구현하고 있다. 예를 들면, <그림1>에서 알 수 있듯이 교수자가 강의하면서 실제 강의실에서 강의를 할 때처럼 필요한 내용을 화면에 직접 쓰면서 진행할 수 있다. 그리고 학생들 또한 <그림2>와 같은 코너를 통해 강의를 듣는 중간 중간에 실제로 배운 내용을 쓸 수 있도록 구현되어 있다. 한자 한문 학습에 있어서 학습자가 한자를 직접 써보는 학습방법은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어서 웹기반 강의라고 하여 이를 배제할 수 없는 것인데, 본 강의 콘텐츠에서는 이를 웹에서 한자 쓰기를 실시할 수 있도록 구현되어 있다.



<그림1> 화면에 직접 쓰는 교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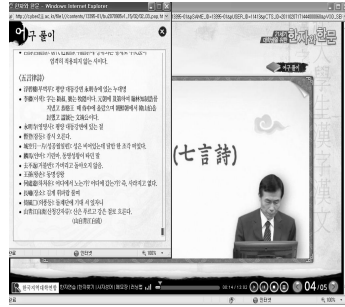


<그림2> 한자 연습

강의 콘텐츠는 학생들의 학습을 돕기 위한 다양한 장치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림3>에서처럼 만화를 이용해 학생들이 지루해 하지 않도록 구성되어 있는가 하면, <그림4>에서처럼 학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어구풀이가 어떤 화면에서도 제공될 수 있도록 링크되어 있다.



<그림3> 만화 활용 고사성어 학습



<그림4> 모든 화면 링크 어구풀이

학생들은 1주에 총 3강으로 구성된 온라인 강의를 수강한 후 평가 문항을 풀게 된다. 평가 문항은 크게 本文學習前, 本文學習中, 本文學習後로 나누어 제공된다. 우선, 본문을 학습하기 전에는 학생 스스로 새로 배우는 한자를 점검해보는 코너가 있다. 또한 지우개 기능을 통해 학생이 학습 전에 이미 알고 있는 漢字를 개별적으로 지워가면서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으로, 본문을 학습하는 중에는 하나의 콘텐츠가 종료될 때마다 <그림5>와 같은 객관식 문항을 통해 자신의 학습을 점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본문을 학습한 후에는 <그림6>과 같은 ‘생각해보기’ 메뉴를 통해 본문에서 배운 내용을 기초로 학생이 간단한 글을 입력하고 그 글을 강의 운영 교수가 보고 학생에게 피드백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상과 같은 ‘지우개 기능’, ‘생각해 보기’ 등은 웹 강의의 특성상 피치 못하게 갖게 되는 한계점들을 고려하여 구현된 것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을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하게 되고, ‘생각해보기’의 實時間 傳達를 통한 교수자의 常時 피드백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있었다고 한다. 학생들의 설문 결과는 아래 3절에서 다시 살펴보겠다.

<표2> 오프라인 과제(1학기를 예시로 함)

주	과제물
제1주	없음
제2주	1과의 신출한자(한자, 음, 뜻)를 5번 이상 쓴 후, 3월 10일까지 제출한다.
제3주	없음
제4주	2,3과의 신출한자(한자, 음, 뜻)를 5번 이상 쓴 후, 3월 24일까지 제출한다.
제5주	46-47쪽의 논어 본문을 3번 쓰고, 한자의 음과 뜻을 쓰고, 본문 풀이를 쓴 후, 3월 31일까지 제출한다.
제6주	54-55쪽의 논어 본문을 3번 쓰고, 한자의 음과 뜻을 쓰고, 본문 풀이를 쓴 후, 4월 7일까지 제출한다.
제7주	없음
제8주	중간고사
제9주	1-7과의 고사성어를 3번 쓰고, 한자의 음과 뜻을 쓰고, 고사성어의 속뜻과 겉뜻을 조사하여 쓴 후, 4월 28일까지 제출한다.
제10주	156-159쪽의 사자성어를 2번 쓰고, 한자의 음과 뜻을 조사하여 쓴 후, 5월 20일까지 제출한다.
제11주	부록에 나온 1,800자 한자 가운데 자신이 모르는 한자를 중심으로 자유롭게 반복해서 연습하되, 100칸 한자 노트 기준으로 총 10장 분량을 쓴 후, 5월30일까지 제출한다.
제12주	
제13주	8-15과의 고사성어를 3번 쓰고, 한자의 음과 뜻을 쓰고, 고사성어의 속뜻과 겉뜻을 조사하여 쓴 후, 6월 2일까지 제출한다.
제14주	없음. 기말고사 준비
제15주	기말고사

<표3> ‘전공용어 漢字語 풀이’ 과제 제출 예시(법학과, 국어국문학과)

罪刑法定主義 : ‘허물 죄, 형벌 형, 법 법, 정할 정, 주장할 주, 의 의’
 죄형법정주의 죄(罪)를 형벌하기(刑) 위해서는 법(法)에 정해진(定) 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主) 의의(義)

一事不再理 : ‘한 일, 일 사, 아닐 부, 두 재, 다스릴 리’
 일사부재리 한 가지(一) 사건(事)을 두 번(再) 다스르지(理) 않는다는(不) 원칙
 無過失責任主義
 : ‘없을 무, 잘못 과, 그르칠 실, 꾸짖을 책, 맡길 임, 주장할 주, 의 의’
 무과실책임주의 그르쳐서(失) 발생한 잘못(過)이 없더라도(無) 맡긴 것(任)
 에 대한 것을 꾸짖을(責) 수 있다고 주장하는(主) 의의(義)
 顯名主義 : ‘나타날 현, 이름 명, 주장할 주, 의 의’
 현명주의 이름(名)을 상대방에게 나타내어(顯) 한다고 주장하는(主) 의의(義)
 (사전적 의미) 대리인이 대리를 함에는 본인을 위한 것을 표시
 하여 행위 효과의 귀속을 받을 사람을 상대방에
 게 표시하여 한다는 주의
 自救行爲 : ‘스스로 자, 구원할 구, 행할 행, 위할 위’
 자구행위 스스로(自)를 구원(救)하기 위해(爲) 행한(行) 행위

준용(準用) - 준할 준, 쓸 용. 준하여(準) 씀(用)
 허사화(虛辭化) - 빌 허, 말씀 사, 될 화. 빈(虛) 말씀(辭)이 됨(化)
 요요무문(寥寥無聞) - 쓸쓸할 요, 쓸쓸할 요, 없을 무, 들을 문. 쓸쓸하여(寥)
 들은(聞)것이 없음(無): 명예나 명성이 보잘것없어 남에게 알려지지 아니함
 부화뇌동(附和雷同) - 붙을 부, 화할 화, 우레 뇌, 한가지 동. 우레(雷)소리에
 붙어(附)
 운니(雲泥) - 구름 운, 진흙 니. 구름(雲)과 진흙(泥) : 차이가 썩 심함을 이르
 는 말
 소산(消散) - 사라질 소, 흩을 산. 사라지고(消) 흩어짐(散) : 흩어지고 사라지
 고 하여 없어짐
 계송(偈頌) - 설 계, 칭송할 송. 불시(偈)를 칭송함(頌) : 부처의 공덕(功德)을
 찬미(讚美)하는 노래
 침어(疊語) - 겹쳐질 침, 말씀 어. 겹쳐진(疊) 말(語) : 같은 음이나 비슷한 음을
 가진 단어를 반복적으로 결합한 말.
 빙공착영(憑空捉影) - 기대 빙, 빌 공, 잡을 착, 그림자 영. 빈(空)곳에 기대(憑)
 그림자(影)를 잡음(捉) : 허공에 의지해 그림자를 잡는다는 뜻으로, 허망한 언
 행 또는 이루어질 가망이 없음을 비유한 한자성어
 서지(書誌) - 글 서, 기록할 지. 글(書)을 기록함(誌) : ①책이나 문서의 형식이
 나 체제, 성립, 전래 따위에 관한 사실. 또는 그것을 기술한 것 ②어떤 인물이
 나 제목 따위에 관한 문헌 목록

3. 講義 前後 設問 調査 分析

본 강의를 듣는 수강생의 수준은 다양하다. 그래서 수강생들이 한 학기 강의에서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학습자들의 학습 후 반응이나 소감은 어떠한지 파악하기 위해 강의 전후에 설문을 실시한다. 講義 前 設問은 강의 첫 주에 실시하는 오프라인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온라인 설문 참여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講義 後 設問은 기말고사 전에 한 학기 동안 수강한 소감과 강의 개선 사항을 묻는 질문지를 통해 학습자의 반응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강의 첫 주의 설문 조사 항목은 수강생의 受講 動機, 학생들의 事前 學習 常態, 고교 한문 학습 경험, <한자와 한문> 강의에서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목표) 등이다. 여기서는 수강생의 수강 동기와 <한자와 한문> 강의에서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에 대한 설문 결과를 소개하겠다.

먼저, 수강생의 수강 동기에 대해 살펴보니 수강생들은 대체로 한자 자격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수강 신청을 한 경우가 많았다. 그 외에, 중국어를 배울 때 도움을 받기 위해서 수강 신청을 하거나, 자신의 전공 공부의 기초 도구인 한자 실력을 쌓기 위해서 수강을 한 경우가 있었다.

한자가 전공 공부의 기초 도구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어떤 이유일까? 대학에서 배우는 전공 가운데 한자어가 많이 등장하는 전공들이 있다. 예를 들면, 法學科, 史學科, 文獻情報學科 등인데, 이러한 전공 학생들은 이 강의를 통해 자신의 전공에 직간접적인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몇몇 중국인 유학생은 한국어 강의를 듣기 위한 적응용 강의로 수강 신청을 한다. 중국인 유학생에 따르면, 오프라인 강의는 유학생들이 이해하기 힘들데 비해 온라인 강의는 반복해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하다고 한다. 이 수업을 통해 본인이 얻고자 하는 것에 대한 답변 또한 수강 동기와 연관된다. 한자 실력 쌓기, 자격증 취득, 전공 공부에 도움 등이다. 수강 동기에 대한 설문 답변의 예시는 <표4>와 같다.

<표4> 수강 동기 답변 예시

<p>“신문이나 기타 잡지 등에 나오는 한자들을 읽고 그 뜻까지 해석할 수 있는 정도로 학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한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또 하나의 목표입니다.”</p>
<p>“대학에 입학 후 4학기 수강신청을 하다 보니 이전 수강하고 싶은 강좌와 평이 좋은 강좌들, 수업을 심플하게 해주시는 교수님 등 이러한 부분은 동기들 사이에서 서로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한자와 한문 또한 수강할까 말까 고민하던 중에 동기들 사이에서 과제가 ‘많다, 짝세다’라는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교에 들어와 어떤 교수님께서 넌지시 말씀하셨던 어떠한 강좌든 저희를 힘들게 해 주시는 교수님이 저희에게 도움이 되어 주시는 교수님이시고 그만큼 더 배움을 주기 위하는 것이니 투정부리지 말고 달게 받으라는 말을 잊지 않고 삶에 실천해나가려고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와 한문 강좌에 저는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p> <p>또 한자와 한문을 수강하게 된 동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저는 한자를 쓰거나 외울 때면 기쁨, 뿌듯함, 성취감 같은 무언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이 생깁니다. 애기 때부터 12살까지 할머니 할아버지 품에서 자라온 저는 또래 친구들보다 한자를 자주 보고 접했던 것 같습니다. 한자로 쓰시는 부분이 많으셨던 할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어렸을 적부터 한자를 가르쳐주셨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여 한자란 저에게 할아버지의 사랑이 묻어있는 소중한 것이라 생각하며 배워보고 싶었습니다.”</p>
<p>“평소 한자어들을 많이 봐 왔지만 주의해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생활에서 쓰이고 있는 한자어들의 뜻을 제대로 알고 사용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끔씩 책을 읽을 때면 한자어가 등장하는데 뜻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TV에서 퀴즈쇼 같은 프로그램에서 사자성어가 간혹 등장할 때 마다 제가 모르는 것이 많아서 이에 대해서도 알아가고 싶어서 이 강의를 수강하게 되었습니다.”</p>
<p>“한국에 유학 와서 원래 한국 문화에 대해 취미 있습니다. 이번 한자와 한문 수업 통해 한국문화 잘 이해하고 싶습니다. 한자와 한문 수업 통해 한국 옛날 문화도 접목하고 싶습니다. 제가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p>
<p>“신문을 볼 때 모든 한자를 읽을 수 있도록 공부하는 것이 첫째 목표이며, 대화할 때 사자성어를 섞어서 대화함으로써 박학다식해 보이고 싶습니다. 한자와 한문을 일상생활에 응용함으로써 제 언어생활의 수준을 높이고 싶은 것입니다.”</p>

“한문이 절대 쉬운 학문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렵고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밀어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배우고 익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글의 발음이나 글자가 한자로 표기하기 전에는 구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한자로 부기해 주면 누구나 어떠한 말인지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다는 점이 한문 학습의 매력이라면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먼 훗날, 지금 노력하며 배운 것들을 당당하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어린 시절부터 한자에 흥미가 있었던 점이 동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부모님의 권유로 일간신문을 읽어왔습니다. 현대 당시에는 신문이 완전히 한글화된 형태로 나오지 않고, 국어와 한자어 혼용으로 나올 때라 읽을 때마다 알 수 없는 한자가 나오면 궁금해서 부모님께 여쭙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초등학교 3학년 시절에는 특별활동 개설반 중 ‘한자 풀이반’에 가입하여 한자 쓰기와 옥편 찾는 법을 배웠고, 또한 EBS에서 방영되던 ‘하늘천따지’라는 교양 프로그램을 즐겨보며 자연스럽게 한자에 대한 관심을 늘려갔습니다. 비록 초등학교 이후로는 한자에 대한 관심이 예전보다 줄어들긴 했으나, 여전히 중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한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수업을 듣고 시험 기간에 공부하며 관심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이번 교과목을 신청하게 된 이유로는 실용성도 고려하였습니다. 교내에는 학기마다 다양한 분야의 교양 과목이 개설되는데, 복학 첫 학기인 저는 대학생생활은 물론 그 이후의 생활까지 염두에 두고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과목을 수강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한자와 한문’이 개설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군 전역과 복학 및 수강신청 시기가 맞아떨어지지 않아 1차로 수강신청하지 못하였으나 교수님께 연락드려 강의를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tv 프로그램이나 서적에 한자가 나왔을 때, 이전 보다 더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법학을 공부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한자와 실생활에서 또는 기본적으로 알아야할 한자를 배우고 싶습니다. 한자를 암기하고 해석해 나가는 재미도 느끼고 싶습니다.”

“그동안 배운 한자에 그치지 않고 더 많고 깊이 공부하고, 법학 전공에 필요한 단어들을 놓치지 않고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p>“기초 한자를 습득하여 한자 자격증 3급을 따는데 도움을 얻고자 한다.”</p>
<p>“제 꿈은 ‘일본어교사’입니다. 학부를 졸업하자마자 교육대학원에 진학하여 임용고시를 패스하는 것이 제 간절한 꿈이자 희망이기에 제 꿈을 이루기 위해 더 많은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일본어 교사가 되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일본어를 월등하게 잘하는 것이 가장 큰 비중이기 때문에 반드시 일본어 실력을 높여야만 합니다. 일본어 실력을 높이려면 한자에 대한 지식이 풍부해야 합니다. 일본어의 기초 밑바탕이 바로 ‘한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꿈이자 희망인 ‘일본어교사’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많은 노력을 가할 것입니다.”</p>
<p>“저는 지금 일본언어문화과에 재학 중이기 때문에, ‘한자와한문’ 수업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본어 1급 취득에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일본어 1급 자격증을 따게 되면, 한자 급수 2급도 따고 싶습니다!”</p>
<p>“제가 이 수업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목표는 생활 속에 숨어 있는 무수한 한자들을 알아가면서 깨닫는 재미를 느끼고 싶고 그 무엇보다도 제일 큰 목표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입니다.”</p>
<p>“우선 한자에 대한 호기심과 한문을 배우고 익히고 싶은 열망이 많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말인 한국어는 한자어가 많기 때문에 사회 생활을 할 때, 漢字를 잘 모르면 혹 무식하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와 미래의 중국을 볼 때, 한자라도 익혀 놓아야(물론 간체자와 같이) 앞으로의 장래를 위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하는 한자를 대학생 때 가급적 많이 알아두는 것이 더 큰 배움의 출발점이라 생각되어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한자를 익히는 것은 세계화시대에 부응하는 일이며,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꼭 갖추어야 할 기본기라고 생각합니다.”</p>

강의가 끝난 뒤의 학습자의 반응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항목은 <한자와 한문>을 수강한 소감, 강의 공간이나 강의 방식 등 개선할 점, ‘전공용어 한자어 풀이’ 과제 수행 후 느낀 점, 오프라인으로 제출하는 수시 과제 수행 후 느낀 점, 기타 자유 의견 등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전공용어 한자어 풀이 과제’를 수행한 후 자신의 전공 분야에 많은 한자어가 사용되고 있음을 처음 알게 되고 다시 한 번 한자 학습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⁷⁾ 오프라인으로 제출하는 수시 과제에 대해서

는 온라인상으로 제시되는 과제는 직접 쓰는 방식이 아니라서 잘 외워 지지가 않았는데, 오프라인 과제는 손으로 직접 쓰면서 하니까 더 잘 외워졌다고 답한 학생들이 많았다.⁸⁾ 학습자의 반응 및 수강 소감에 대한 조사 결과 예시는 <표5>와 같다.

<표5> 학습자의 반응 및 수강 소감 예시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학기 <한자와한문>을 수강하게 된 최OO 학생입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고사성어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 조금은 뿌듯함이 남습니다. 강의소감문이라는 색다른 과제를 주셔서 오늘 종일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처음 교수님의 강의를 수강 신청할 때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부족한 지식이었던 한자이기 때문에 거리감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현재 공부하고 있는 전공과 가깝다는 생각에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수업을 들으면서 인상이 깊었던 것은 단군신화에 대한 이야기였고 고사성어에 대해 알기 쉽게 뜻풀이와 이야기를 묶어서 강의해 주셨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직접 한자를

7) 답변 예시 :

“이 과제를 받았을 때 처음 들었던 생각이 ‘전공이 광고홍보전공인데, 한자어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영학부에 있다 보니 영어에 얽매여 ‘전공 용어가 대부분 영어로 된 것 들뿐 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것에서부터 한자어가 많이 쓰이고 있었구나.’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관심했던 한자어에 대해 다시 한 번 알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경영학부 광고홍보전공 이OO 학생)

8) 답변 예시 :

“많이 외우지는 못했지만 모르고 있던 한자에 대해 알게 되면서 흥미를 느꼈고, 강의하시는 교수님들도 한분이 아닌 여러분이 나오셔서,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시과제로 내주셨던 과제 중 3번씩 적어오는 과제는 이 강의를 듣는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거기서 외웠던 한자들은 거의 까먹지 않고 있습니다.”(사회과학부 사회복지학전공 오OO 학생)

“오프라인으로 제출하는 수시과제는 그동안 제가 학습한 고사성어의 음과 뜻풀이를 학교 오가는 버스 안에서 작성하였던 것이 기억납니다. 미리 예습해 놓은 고사성어를 3번 반복해서 쓰는 것이었기에, 저에게 공부가 더 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국어교육과 최OO 학생)

써보는 과제를 제출하지 않았기에 많은 어려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자와한문’ 강의에서 애니메이션 화면으로 고사성어의 뜻풀이와 이야기를 묶어서 설명했던 것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원격강의임에도 불구하고 일일이 자필로 쓰는 과제를 내주시면서 온라인 강의의 한계를 보완해 준 것 같습니다. 한 분이 아닌 여러 분의 교수님께서 단원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방식 또한 좋았습니다. 앞으로 바라는 점은 과제나 시험을 원격으로 인터넷 메일이나 온라인 제출 등으로 처리를 해주는 강의방식으로 바뀌었으면 한다는 점과, 1학기 동안 최소 한 달에 한번은 강의실에 모여서 궁금한 점을 묻고 답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자와 한문’을 수강하게 된 동기는 제 학과가 역사과여서 수업할 때 한문이 많이 섞여 나옵니다. 조금이나마 수업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한자와 한문’을 수강하고 나서 제가 실력이 부족한 면도 있지만 많이 따라가기 힘들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자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여서 수강을 하게 되니까 더욱 그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사자성어나 고사성어 등의 뜻과 해석을 하는 것은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다만 궁금하다가 모르는 점이 나왔을 때 그 즉시 묻고 싶지 못하거나, 고사성어의 해석을 배운 후 그것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같은 클래스 수업을 듣는 학우들과 의견을 나누고 싶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카카오톡과 같은 SNS를 활용하여 논의하는 방식이 개설되면 좋겠습니다.”

“한자와 한문을 수강한 저의 소감은, 모든 일이나 그렇지만 한자 공부에도 의지가 필요하며, 노력과 끈기, 그리고 복습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한자의 필요성을 모르고 있다가 이 수업에 접한 후 일상에서나 어디에서나 한자어가 많이 쓰인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한자 공부에 조금이나마 시간을 투자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르는 한자와 한문들을 알게 되면서 약간이나마 흥미를 느꼈습니다. 다 외우지는 못했지만 구입한 교재를 토대로 다시 한 번 공부해 볼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4. 웹기반 강의와 f-class

본고에서는 웹기반 강의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방법으로 f-class(flipped class)를 제안하고자 한다. 학생들의 설문을 통해 알 수 있

듯이, 웹기반 강의는 온라인으로 강의를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프라인 강의에 비해 교수자와 학습자가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데, 본고에서 제안하는 교육방법은 f-class이다.

f-class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강의를 듣고 집에서 과제를 수행하는 既存의 教育 方式을 뒤집어서(flipped), 학생들이 집에서 온라인을 통해 강의를 듣고, 학교에서는 강의 내용을 전달하기보다 학습자들과의 相互作用을 통해 보다 심화된 학습을 끌어낼 수 있는 討論과 組別 活動 등의 創意的인 학습을 수행하는 教育方法이다. 미국의 경우 주로 고등학교에서 해당 수업방식을 도입하여 학생들의 학습력 및 성취도를 향상시키고 있다. f-class를 통해 학습자의 학습법 전환 및 능동적인 학습태도로의 변화를 꾀하고, 이를 통해 학생 각각의 학습력까지도 향상시킬 수 있다.

한국과학기술원이 ‘학생 중심, 그룹 중심, 토론 중심’이라는 수업 환경 개선을 위해 2012년에 도입한 ‘Education 3.0 프로그램’이 f-class와 유사한 사례라 할 수 있다. ‘Education 3.0 프로그램’을 적용한 수업에 들어온 학생들은 우선 온라인 학습 플랫폼인 KLMS(KAIST Learning Management System)에 접속해 교수가 사전에 준비한 강의 비디오, 강의 슬라이드, 외부 동영상 등 디지털 자료를 반복해 개인별 진도에 맞춰 학습한다. 궁금한 사항은 온라인에서 질문하고 과제도 온라인으로 제출한다. 최소 주 1회 실시되는 강의실 수업에서 온라인에서 학습한 내용을 학생과 교수, 학생과 동료 학생들 간 질문하고 토론하면서 그룹을 만들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학생들은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IT-based)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학습할 수 있으며, 수준별 맞춤학습 제공으로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가능하다. 또한 선진대학과 강의 및 콘텐츠를 공유해 협력학습을 할 수 있으며 교수·학생 간 또는 동료학생 간의 토론 학습으로 상호 통합적 학습이 가능하다.⁹⁾

이러한 교육방법은 현재 실시되는 <한자와 한문> 강의에 그대로 적

9) <http://newspr.kaist.ac.kr/boards/view/campus/2200/page:1>

용될 수 있다. 학생들은 우선 <한자와 한문> 웹 강의를 수강하고,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정기적으로 강의실에 모여 강의를 들으면서 생긴 궁금한 점을 교수자나 동료에게 묻기도 하고, 강의와 관련되어 제시해 주는 심화 과제를 조별 토론을 통해 해결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다. 즉,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방식의 내용 중심 강의는 온라인을 통해 事前에 습득하고, 오프라인 강의에서는 조별 학습 위주의 학생 중심 수업을 토론을 주로 하여 실시한다는 점이 이 교육방법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대형 규모의 강의를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한편 웹기반 강의를 가지는 문제점 또한 해소함으로써 문제해결능력이나 창의성을 갖춘 인재를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물론 f-class가 ‘교양한문’에만 적용할 수 있는 교육방법이라기보다는 웹을 기반으로 한 강의처럼 강의 전달 방식이 직접적인 소통이 어려울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교육방법이라 할 수 있다.

IV. 結論 및 提言

이상으로 웹을 기반으로 하여 대학 교양한문 강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운영한 사례를 살펴보았다. 본고의 연구 목적은 대학의 교양 교육이 점차 강화되면서도 그 강화의 방향이 실용교육에 치우치다 보니 교양한문의 위상이 점차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 교양한문의 개선 방안의 一例를 모색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 개의 대학이 연합하여 강의 교재를 편찬하고, 편찬한 교재에 따른 팀티칭 온라인 강의 콘텐츠를 개발하여 운영한 사례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된 교육방법의 하나로 f-class를 제시하였다.

학생들은 온라인에 구현된 <한자와 한문> 강의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자신이 편한 장소에서 강의를 듣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교수자로부터 常時로 제공받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그들이 수강 목표로

삼았던 것에 일정 수준 도달했을 것이라 생각된다. 향후 이러한 웹 강의를 보다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몇 가지 개선점을 제언하며 본고를 맺고자 한다.

우선, 웹 강의의 특성 상 오프라인 강의보다 수강생이 훨씬 많은데, 이들의 학습을 도와주고 교수자의 강좌 운영을 지원해줄 教育 助教 制度가 운영될 필요가 있다. 교수자가 수강생의 학습 내용에 대한 질문을 담당한다면, 교육 조교는 학습자의 질문에 대한 피드백, 학습 격려, 제출 과제 검토 및 채점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해당 전공을 전공한 석사 과정 재학 이상의 자를 선정할 수 있겠다.

또한 온라인 강의이므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학습자들 간의 소통 부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과별로 또는 무작위로 학습 모둠을 편성해 줄 필요가 있다. 자연스럽게 對面하여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오프라인 강의와 달리, 온라인 강의는 혼자 학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동일한 과목을 수강하는 다른 학습자와의 상호 작용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과목 토론방이나 게시판 등에서 학업에 관련된 토론을 할 수 있는 주제를 마련해주고, 자신이 속한 학습모둠별로 오프라인에서 주제 토론이나 과제 수행을 한 후, 그 결과를 온라인 과제방에 올리도록 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또한 기술적인 부분일 수도 있지만, 온라인 강의의 경우 수강생들이 강의를 시작하고 나서 다른 일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다. 이는 학습 내용을 수용하는 데 있어 부작용이 매우 크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강의 수강 중 실제 수강 여부를 확인하는 메시지 창이 콘텐츠 상에 떠서 이를 클릭하지 않으면 강의를 종료되는 출석 인증 팝업창을 설치하거나, 강의 콘텐츠를 본인이 클릭해야만 다음 화면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제어하는 기술적 장치 등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고에서 제시한 f-class의 시급한 시행이다. 강의 시간에 적극적으로 강의를 수강하지 않는 학생은 f-class를 통해서도 강의에 적

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오프라인 강의에서 학생들의 능동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반응을 필수 전제 조건으로 하는 f-class는 최소한 교수자의 일방적인 강의를 견디지 못하고 졸거나 다른 일에 몰두하게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參考 文獻>

- 강석중, 「대학 한문교육의 현실과 문제-인제대학교 교육현황을 중심으로」, 『한자한문연구』 제4호, 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 2008.
- 芹川哲世, 「한국의 대학에서의 한문 교육과 한문교과서」, 『漢文教育研究』 제33호, 한국한문교육학회, 2009.
- 김영우, 「대학 교양한문 교육의 방향-인제대학교 교양한문을 중심으로」, 『한자한문교육』 제27집,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11.
- 김우정, 「대학 교양 한자 교육의 현황과 과제」, 『한자한문교육』 제20집,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08.
- 김진경, 「대학 한문 교육의 교수학습법 개발 방안」, 『한문고전연구』 제19호, 한국한문고전학회, 2009.
- 박영호, 「대학 교양교육으로서의 한문교육의 방향」, 『동방학문학』 제27집, 동방한문학회, 2004.
- 이상봉, 「교양한문수업에 대한 몇 가지 제언-부산대와 인제대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자한문교육』 제28집,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12.
- 최성엽, 「대학 교양한자교육의 현황과 방향」, 『동방학문학』 제43집, 동방한문학회, 2010.
- 한국지역대학연합 <한자와 한문>편찬위원회, 『21세기 대학생을 위한 한자와 한문』, 태학사, 2009.

Abstract

*A study of WEB based instruction Management for ‘Chinese Classics as Liberal Arts’ in University. / Baek Kwang Ho**

This study is intended to introduce a case of Chinese character as Liberal Arts opened as liberal arts in a Korean university to researchers related to the three nations, that is, Korea, China and Japan. The lecture to be studied in this report is a lecture named <Chinese character and Chinese classics> developed by 8 universities in Korea uniting. This study aims to introduce a case of Web contents development and Cyber-campus operation of <Chinese character and Chinese classics>, Chinese character subject as liberal arts opened for students whose major is not Chinese character.

It is the present situation that in Korea, a lecture related to Chinese related lectures gradually decrease because Korean universities tend to focus on practical education though they gradually reinforce liberal arts. As one of solutions for that, various universities developed a textbook for lecture and operated a Team teaching on-line lecture.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f the situation similar with Korean universities occurs in China or Japan, an idea able to improve a lecture related to Chinese character as Liberal Arts can be sought.

【Key words】 Chinese character as Liberal Arts, Web Based Instruction, Chinese character and Chinese classics, Cyber-campus, Web contents, f-class

투고일 : 10월 30일, 심사일 : 11월 25일, 게재확정일 : 12월 9일

* Assistant professor of Jeonju University / khbaek@jj.ac.kr